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주민 박탈감 확대”

부산상공회의소, 반대 공동성명 대구·광주·울산·창원 대표 발표 “지방경제 우선 회복, 격차 해소”



부산상공회의소 전경.

부산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비수도권 5개 지역 경제계를 대표해 대구·광주·울산·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의 뜻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부산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

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부산상의 허용도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형 성장은 더 이상 우리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위해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의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동네방네



부산시, 5년간 143억 투입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부산시는 ‘지능형 무인자동화 스마트물류 시스템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원천기술 및 상용화기술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총 142억 8000만원(국비 57억원, 지방비 57억원, 민간부담금 28억 8000만원)이 투입된다. 주관기관으로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사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부산항내 자율주행장비를 위한 핵심센서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물류센터 내 물류장비의 원격제어 및 무인자동화 기술개발을 추진 ▲부산지역 대형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블록체인·LPWA(저전력 광역통신기술) 기술기반의 화물관제·통합운영 플랫폼 등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부산=허의원 기자

“진도 보배섬 매력 전국민에 알려주세요”

진도군, 보배섬 SNS서포터즈 모집

“무궁무진한 보배섬 진도군의 매력을 알릴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전남 진도군은 ‘제3기 보배섬 SNS 서포터즈’ 30명 내외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SNS 서포터즈’는 보배섬 진도군의 독특한 매력을 인터넷상에 올려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은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이 모집하고 있으며,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사람이면 된다.

신청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와 페이

스북 등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말에 발표한다.

군은 SNS 서포터즈에게 게시물에 대한 원고료와 우수 게시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이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역량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군의 주요 축제, 문화·관광 등을 관광객 눈높이에서 공유하고, 보다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며 “진도 홍보 도우미가 돼 줄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김남중 기자 5555knj@



문경생태미로공원.

문경미로공원 개장 2개월 누적 관광객 2만명 돌파

면적 3586㎡... 4개 미로 꾸며

경북 문경시 문경생태미로공원이 개장 2개월 만에 누적 관광객 2만 명을 돌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올 4월 22일 개장한 문경생태미로공원 누적 입장객은 지난 4월 기준 2만509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문경생태미로공원에 2만 번째로 입장한 A(예천)씨 가족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

문경생태미로공원은 총 공사비 18억 원을 투입해 면적 3586㎡에 도자기, 연인, 돌, 생태 등 4개 미로(총길이 1.9km)로 꾸며졌다.

당초 문경생태미로공원 부지는 문경새재 자생식물원 형태로 운영돼 왔다.

여기에 4개 미로공원과 전망대, 산

책로 등을 추가해 식물테마 미로공원으로 변경했다.

도자기 미로, 연인의 미로, 생태 미로는 피톤치드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생식물인 측백나무로 특색있게 꾸몄다. 각 미로마다 설치돼 있는 도자기 및 연인 조형물에서는 추억의 인생샷도 남길 수 있다.

문경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전통시장문화 등을 알리기 위해 외지 방문객의 경우 ‘문경사랑상품권’을 배부하고 있다.

박흥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올 연말까지 입장객은 8만9000명, 입장 수입은 1억6000만원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방문객 불편사항을 개선해 문경새재의 새로운 랜드마크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경=김홍기 기자 gi2136@



경북형 고교학점제 도 단위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경북형 고교학점제 확산·정착 올인

경북교육청 ‘도 단위 추진단’ 구성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고교학점제의 점진적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 단위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북형 고교학점제 도 단위 추진단은 단장인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부단장인 교육국장 외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괄지원팀과 연구분석팀으로 나눠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2022년부터 부분 도입되어 2025년에 본격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점진

적 확산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학사제도 혁신, 학생 성장 중심 수업과 평가제도 확립, 교원·시설 인프라 구축 등 학사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 도 단위 추진단은 상·하반기 정기 협의회 개최로 고교학점제 관련 업무담당별 추진 계획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또한, 총괄지원팀과 연구분석팀이 월별 모임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경북=문봉현 기자

예천군, 어르신 맞춤형돌봄서비스 집중접수

예천군은 여름 폭염을 대비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독거·조

손·고령부부가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신청권자는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웃으로 신청서,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우편팩스·신청하면 된다. 다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중복 사업 자격 해당자는 신청할 수 없다.

/경북예천=문봉현 기자

전남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변경

전남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연기됐다.

전남소방본부는 6일 2020년도 제1회 전남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력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802명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전남도가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체력시험 연기를 결정했다.

추후 시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완화될 시점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예천군보건소

걷기왕 참여자 모집

예천군보건소는 범군민 걷기운동 붐 조성을 위한 모바일 커뮤니티를 개설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도전! 나Do 너Do 걷기왕’ 참여자를 모집한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도전! 나Do 너Do 걷기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군민들의 부족해진 신체활동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걷기 운동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군민이면 된다. 차수별 100명씩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1일 오후 6시까지 운영 전 사전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 제공동의서를 다운받아 보건소로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예천=문봉현 기자